

[유안타증권 주식시황 Weekly]

# 주간: 知

삼성전자 파업 우려가 준 기회(5월 3주)

#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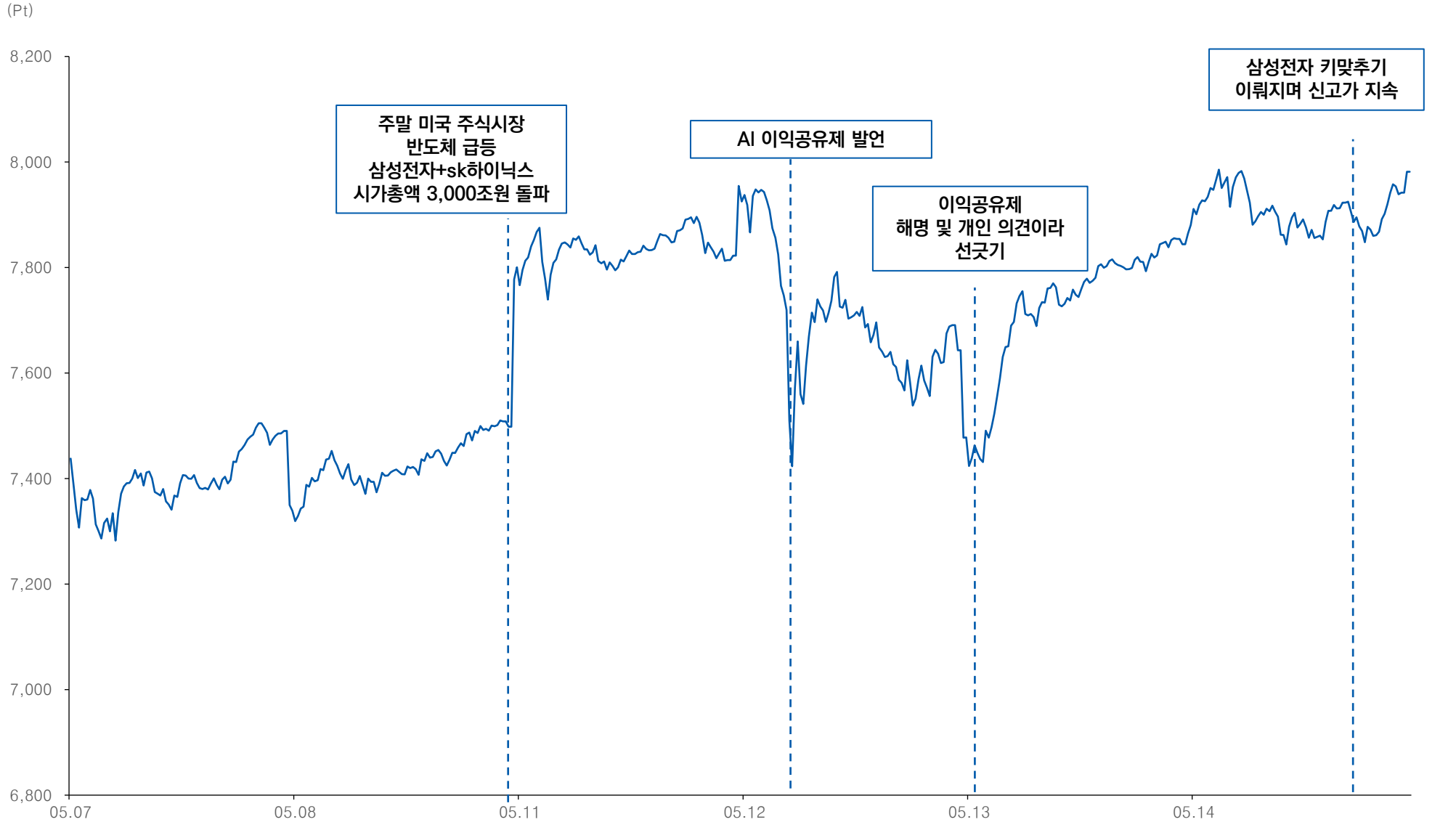
---

## 삼성전자 파업 우려가 준 기회(5월 3주)

- 금주 KOSPI는 장중 7,999pt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승 동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대형주였으며, 자동차와 로봇, 소비재 등 일부 업종으로 순환매도 확산됐습니다. 특히 AI Capex 확대 기대와 글로벌 IT 이익 추정치 상황이 반도체 장세를 지지했습니다.
- 이번 반도체 강세는 단순 테마 랠리보다 이익 추정치 상황에 기반한 구조적 상승으로 판단됩니다. 물가와 금리 부담은 단기 소음, 즉 차익실현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AI 투자는 일반 소비와 다른 B2B Capex 성격이 강한 영향에 투자 사이클 훼손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대규모 차익실현에도 개인 자금이 이를 흡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신용융자잔고와 고객예탁금은 사상 최고권에 진입했지만,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중은 과거 과열 국면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대비 시가총액 프리미엄이 역사적 저점권까지 축소됐습니다. 최근 주가 격차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 기대 차이뿐 아니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 리스크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 상황과 함께 상대적 주가 부진을 되돌리는 키맞추기 장세가 전개될 전망입니다.
- 업종 전략 측면에서는 반도체 중심 주도주 비중 유지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낙폭 과대 실적주 중심의 순환매 대응도 필요합니다. AI Capex 수혜가 이어지는 IT 중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되, 2차전지, 화장품, 방산, 조선 등 이익 개선 대비 주가 반영이 덜한 업종으로 알파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주 장중 7,999pt 도달

## KOSPI 주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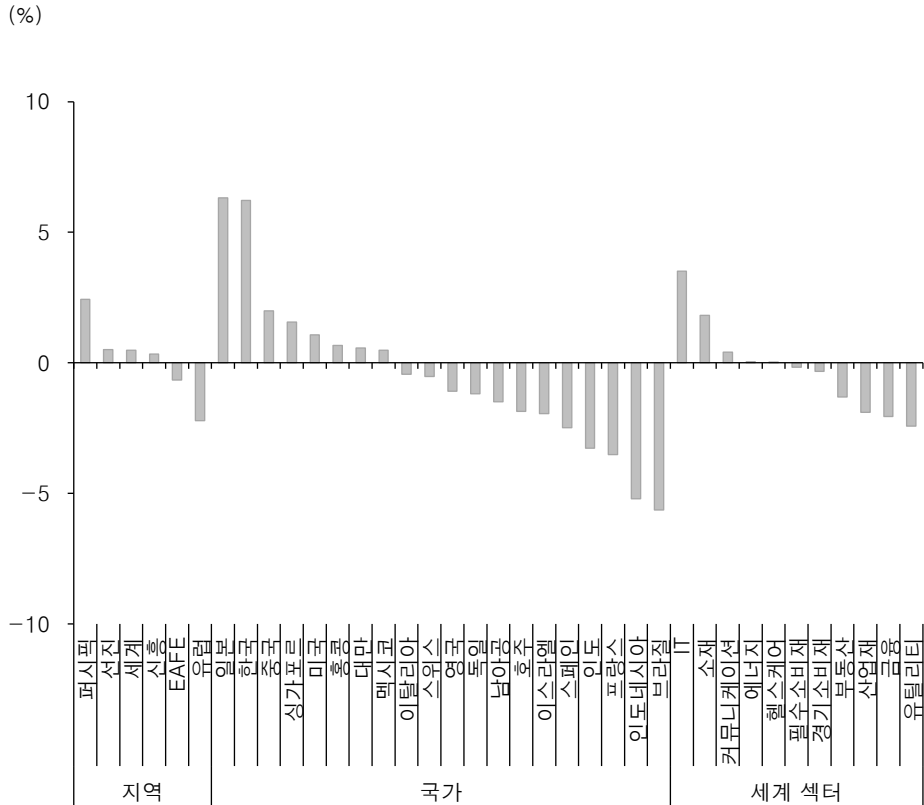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주간 주식시장 Review : 반도체 주도력 지속되는데 순환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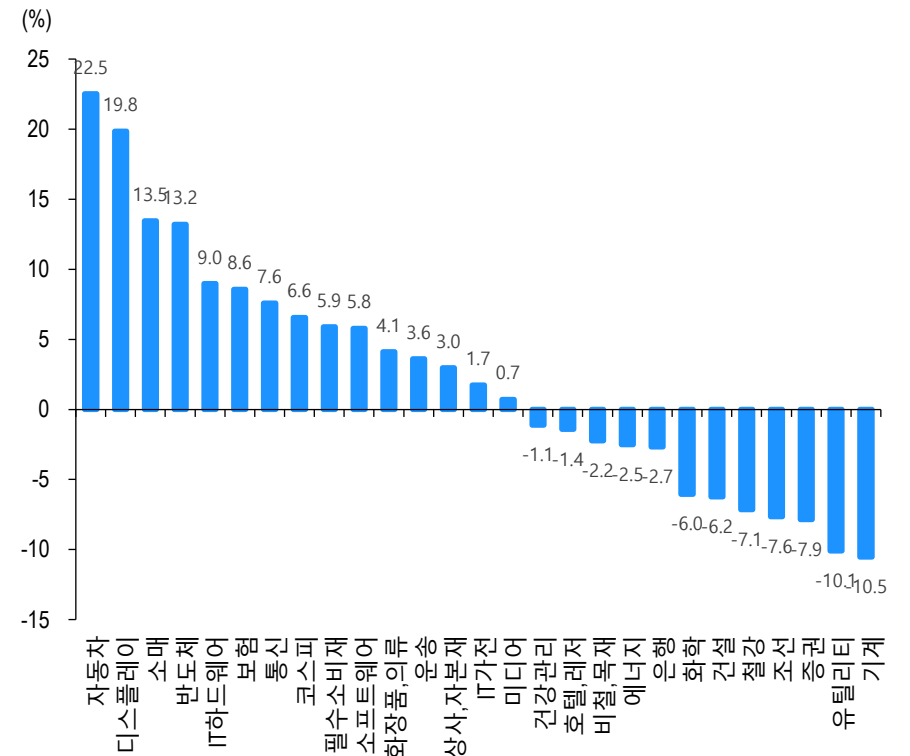
- 주간(5/7~5/14) KOSPI, KOSDAQ 각각 +6.5%, -1.4% 등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 지속에 소외되어 있던 반도체, 소매, 디스플레이 업종까지 저가매수 유입되며 지수 신고가 경신
- 업종별로 자동차, 디스플레이, 소매/유통 업종 강세였으며 반도체 역시 흔들리지 않음. 기계, 증권, 조선 등 차익실현 매물 출회
- 호실적과 호수출 (인바운드 회복) 영향에 유통 업종 포함 화장품 등 경기소비재 기대감 지속 가능할 전망

## 주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5월 13일 종가 기준

## 주간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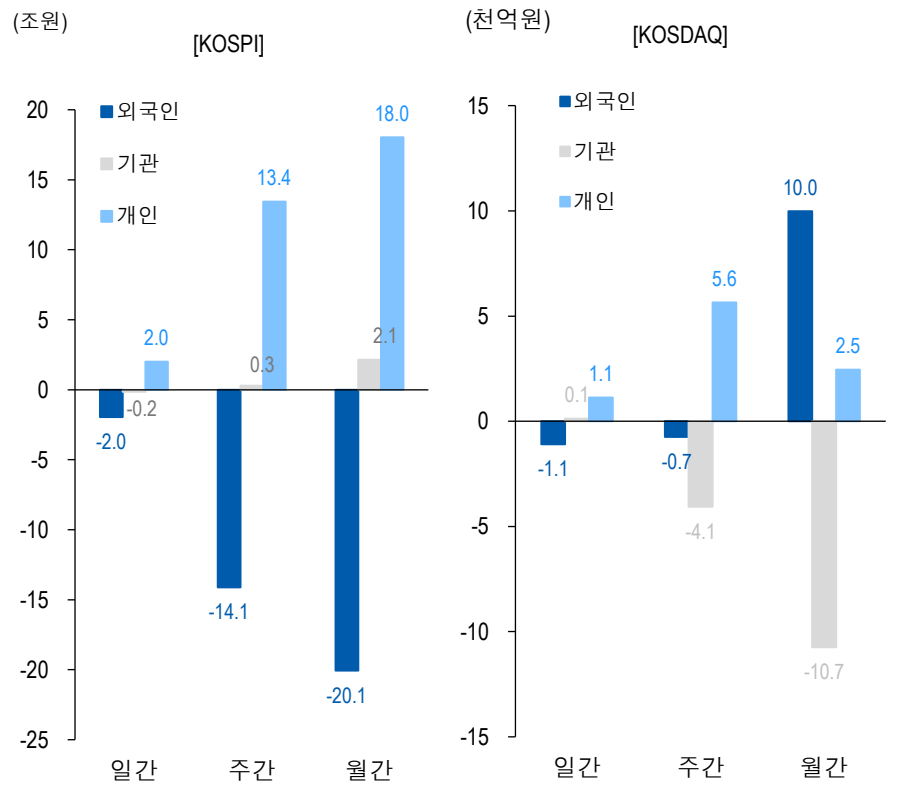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5월 14일 종가 기준



# 외국인 대규모 차익실현에도 개인투자자 매수세가 신고가 견인

- 외국인 주간 14.1조원 순매도. 대형주 순매도에도 개인 13.4조원 순매수하며 차익실현 매물 다 받아낸 상황 반도체, 자동차 등 대형주 중심 수급 이동
- IT가전, 철강 등 이익추정치 상향 지속됐음에도 주가 흐름 약했던 업종 외국인 순매수. 종전 기대감에 차익실현 있었던 방산(상사,자본재), 호실적 및 수주 지속됨에도 파업리스크 반영했던 조선 역시 순환매 기대 가능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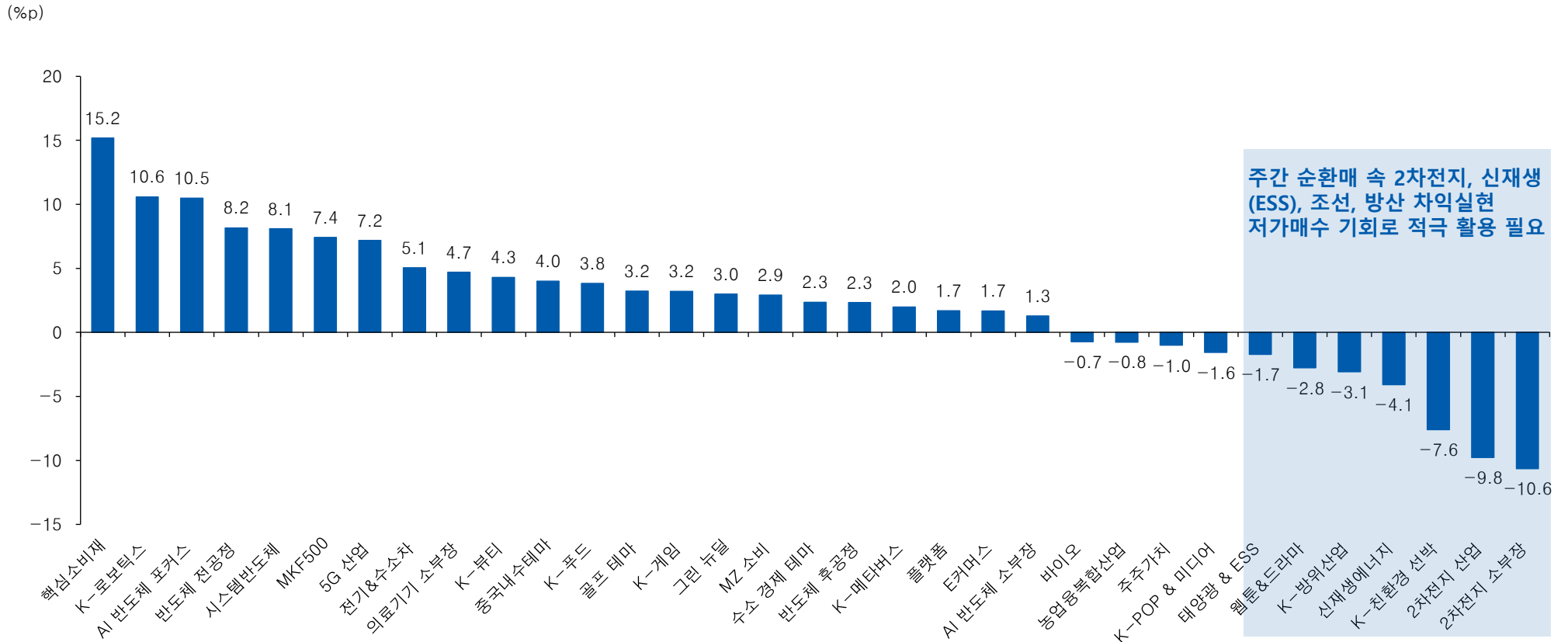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IT가전	반도체	반도체
	철강	IT하드웨어	자동차
	에너지	자동차	기계
	디스플레이	상사, 자본재	조선
	화장품, 의류, 완구	소매(유통)	증권
순매도 상위	IT하드웨어	은행	화장품, 의류, 완구
	상사, 자본재	화학	보험
	증권	조선	소매(유통)
	자동차	IT가전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계	IT하드웨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로봇(자동차), 소비재(유통) 순환매도 이뤄졌던 한주

- 금주 주간 삼성전자 9%, SK하이닉스 19% 상승하며 8천피 목전. 테마별로 봤을때 소비재, 로봇 등 동반 수익률 최상위권 포진
- 반면 2차전지, 조선, 신재생, 방산 등 기존 주도 호실적 호수출 테마는 수익률 하위권. 순환매 이뤄진 영향. 해당 테마들 이익 모멘텀 건조한 가운데 저가매수 기회로 적극 활용 필요

## 주간 테마별 수익률



# 미중 정상회담(5/14) 결과 및 영향 정리



결론: 빅딜 없었다. 구조적 갈등 해소 아닌 전략적 휴전 국면. 단기적 긴장 완화 이벤트로 해석 가능

구분	핵심 내용	시장 영향
전체 성격	미중 관계는 전면 화해가 아닌 불안정한 긴장 완화 국면 진입	무역분쟁 리스크 프리미엄 일부 완화. 단기 위험자산 선호에 우호적
무역·시장 접근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중국의 대미 투자 확대 논의	애플·테슬라·소비재 등 중국 매출 비중 높은 기업에 긍정적
에너지·호르무즈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통행료·군사화 반대, 이란 비핵화 원칙에 공감	유가 리스크 프리미엄 완화. 항공·화학·소비재에 우호적, 정유·방산은 일부 부담
미국산 원유 구매	중국은 호르무즈 의존도 완화를 위해 미국산 원유 추가 구매에 관심 표명	미국 에너지 수출 확대 기대. 실제 구매 계약·관세 완화 여부가 관건
기술·AI 반도체	H200 중국 수출 승인 등 첨단 반도체 통제 완화 기대 부각	엔비디아·AI 반도체·HBM 밸류체인에 긍정적. SK하이닉스·삼성전자 투자심리 개선
희토류·공급망	미국의 반도체 수출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 완화 간 빅딜 가능성	전기차·배터리·방산·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 기대
대만 리스크	중국은 미국의 대만 독립 반대 입장과 무기 판매 축소 신호를 주시	구조적 리스크는 잔존. 반도체 공급망 디스카운트 완전 해소는 제한
정치 리스크	미국 중간선거, EV·태양광 수입규제, 관세 유지 여부가 변수	이번 회담은 최종 합의보다 협상 프레임워크 성격. 후속 이행 확인 필요

# 주간 Market Calendar – 엔비디아 실적, 삼성전자 파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5월 3주차 주간 일정

	5월 18일(월)	5월 19일(화)	5월 20일(수)	5월 21일(목)	5월 22일(금)
<b>경제지표</b>		미국) ADP 취업자 변동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b>정치</b>		한일 정상회담		삼성전자 총파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
<b>기업</b>		미국) 홈데포	미국) 엔비디아 실적 (한국시간 21일 오전 3시)	미국) 월마트, 플로랄프로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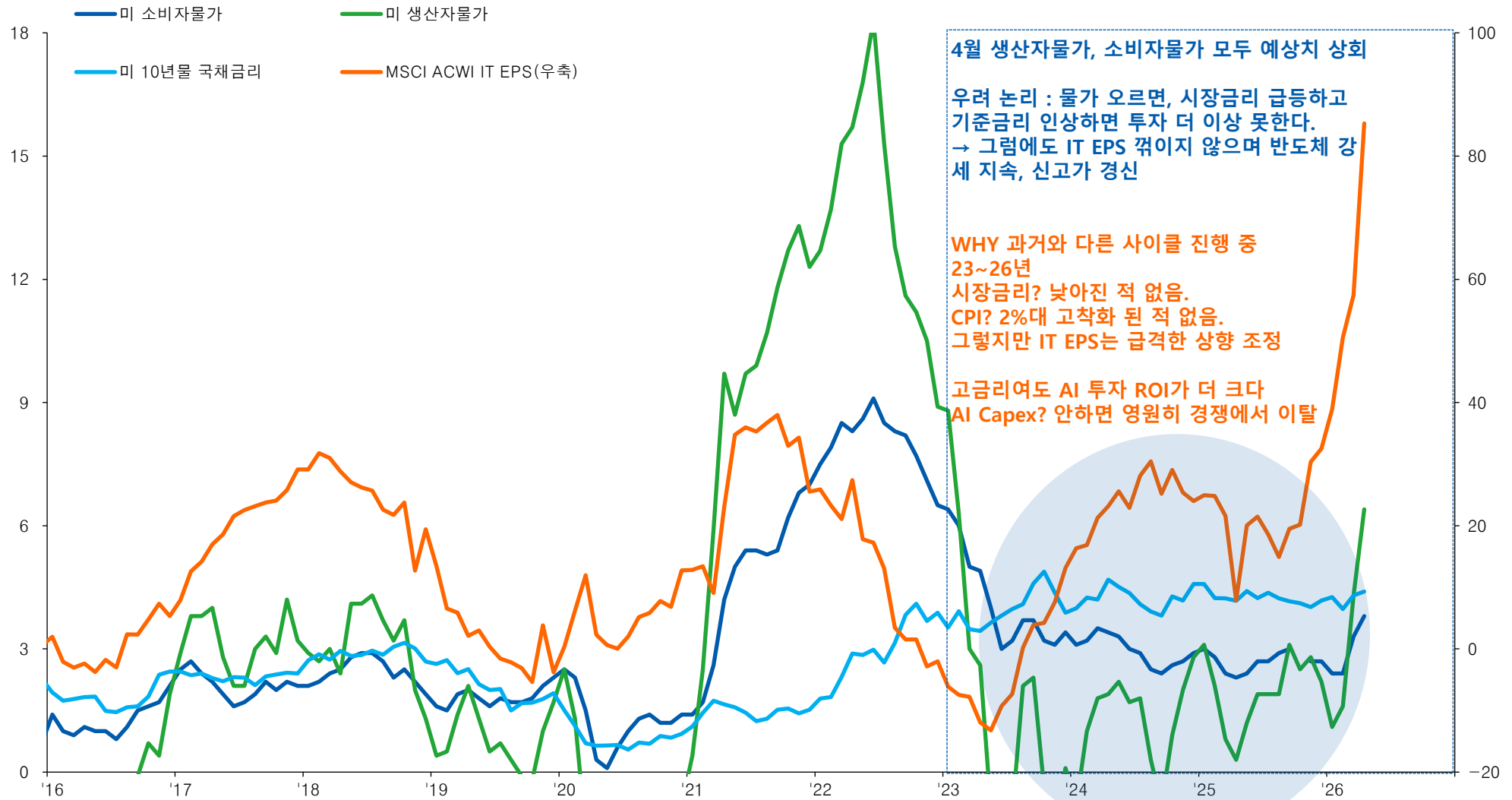
### 주목 Point

엔비디아 실적과 삼성전자 파업, 레버리지 ETF 출시 등 국내 반도체 업종 주가 등락에 영향 미칠 이벤트 다수 포진. 엔비디아 실적은 하이퍼스케일러 Capex의 후행 결과물이 아니라 AI 인프라 수요가 실제 매출 및 가이던스로 확인되는 핵심 이벤트. 현재 H200 중국 수출 재개 기대까지 붙어 있어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적인 주가 등락 방향성 제시할 전망. 삼성전자 파업 이슈는 현재 해당 리스크 프리미엄 반영하며 주가 약세인 삼성전자 주가 상승 기대하게 할 요인. 다만 원만한 협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반도체 공급 제약 우려 발생 가능. SK하이닉스 상대적 반사수혜 기대 포인트

# 물가 오른다고 클라우드, 챗GPT 해지하실 건가요?

이번 AI 사이클의 본질은 기업의 IT 장비, 소프트웨어 투자가 실적을 견인하는 B2B Capex 성격. 과거 소비 경기 주도 국면과 본질적으로 차별화

(% YoY)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Fear Of Missing Out에 빠진 개미들, '빚투'가 우려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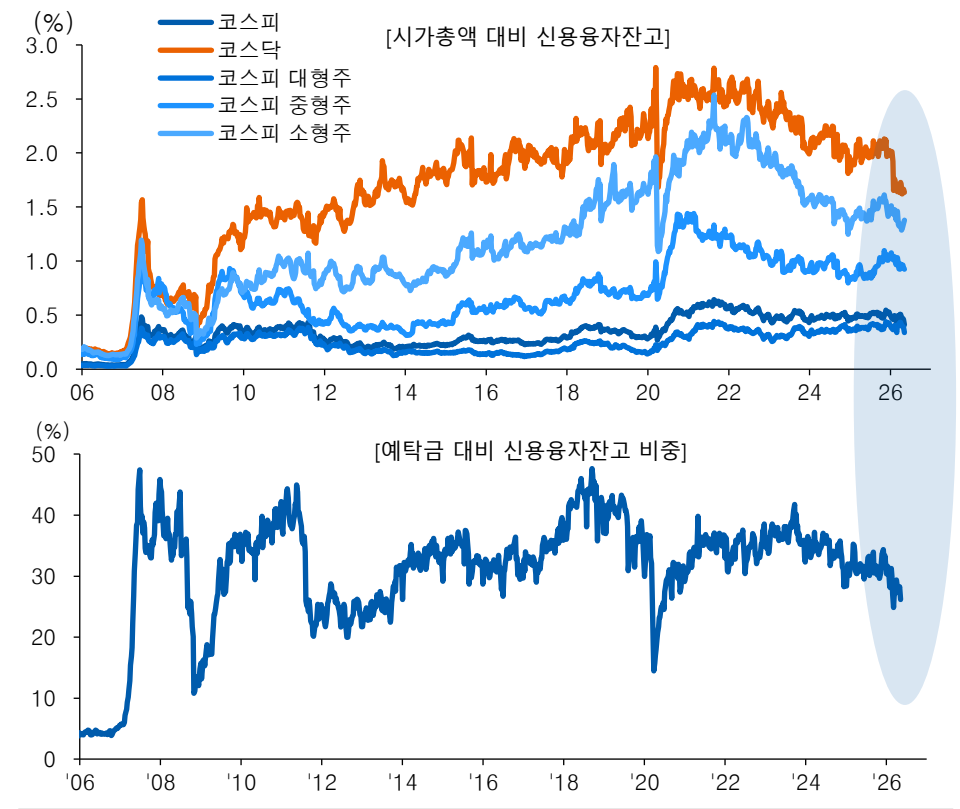
- 5월 13일 기준 고객예탁금 137조원, 신용융자잔고 35.5조원으로 신용융자잔고 절대치 역사상 최고치 경신. 빚투와 대기자금 동시에 커진 상황. 과열 우려 확대
- 다만, KOSPI 시가총액 확대를 감안하면 시총 대비 신용융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 중. 특히 KOSDAQ의 경우 최근 비중 더 급감
- 예탁금도 신용융자잔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개인 수급도 전적인 레버리지 의존이라 볼 수 없음.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 신용융자잔고 역사상 최고치 경신하며 빚투 우려 야기 했지만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잔고 비중은 급락, 예탁금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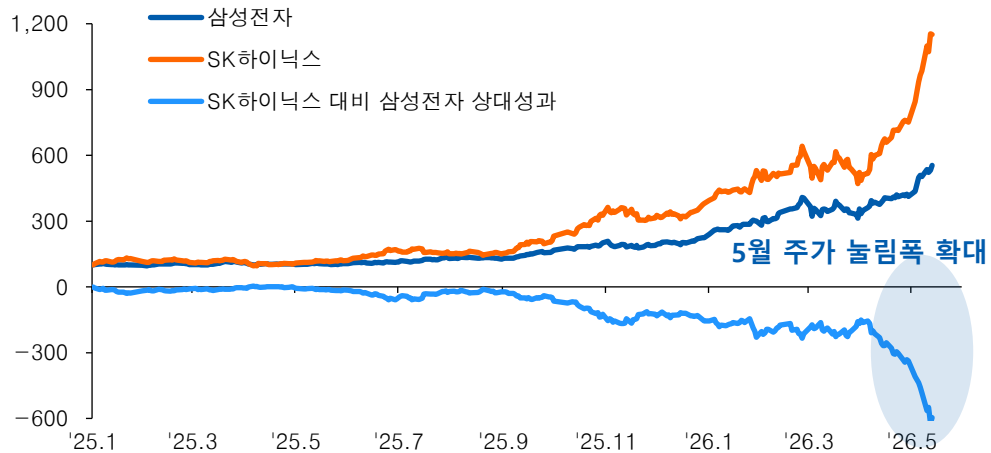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삼성전자 파업 Risk 반영하며 주가 눌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 시가총액 프리미엄은 역대급으로 축소, 반대로 파업 리스크 해소 된다면? 삼성전자 키맞추기 장세에 미리 대비할 필요

(25/1/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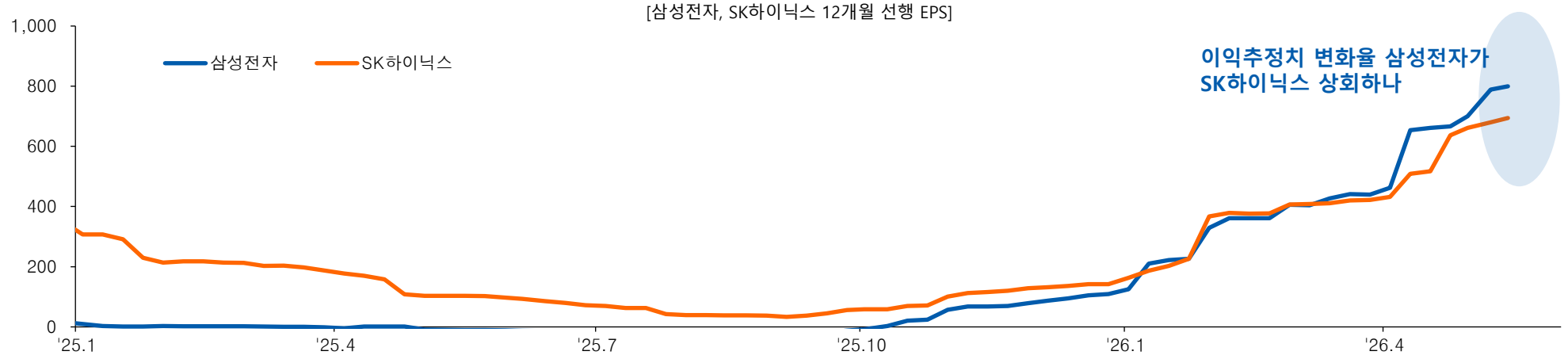
날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뉴스플로우	의미
5월12~13일	중노위 사후조정 17시간 진행 후 결렬	파업 현실화 우려 확대
05월 13일	노조, 5/21~6/7 총파업 방침 재확인	18일간 파업 예고
05월 13일	노조 “파업 종료 전까지 사측과 대화 고려 안 함”	강경 입장 표명
05월 14일	삼성전자, 노조에 직접 대화 재개 제안	사측은 교섭 여지 남김
05월 14일	중노위, 5/16 사후조정 재개 요청	파업 전 마지막 조정 변수
05월 14일	산업부 장관, 파업 시 긴급조정권 불가피 언급	실제 파업 장기화 가능성 제한 기대 요인(14일 주가 반등 동력)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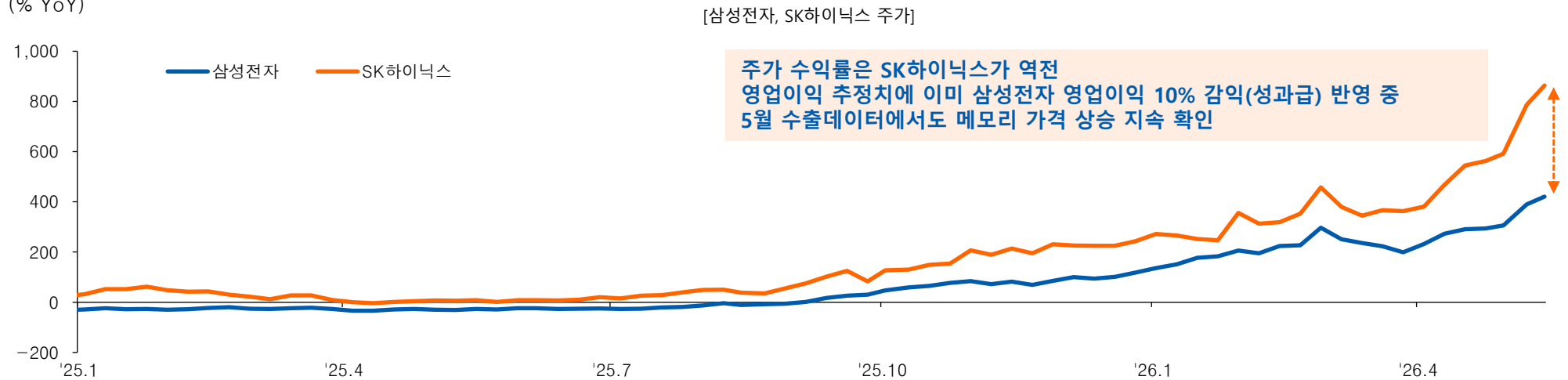
# 삼성전자 파업 Risk 반영하며 주가 눌림, 기회로 삼아야 한다

파업 우려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 시가총액 프리미엄은 역대급으로 축소, 반대로 파업 리스크 해소 된다면? 삼성전자 키맞추기 장세에 미리 대비할 필요

(%YoY)



(%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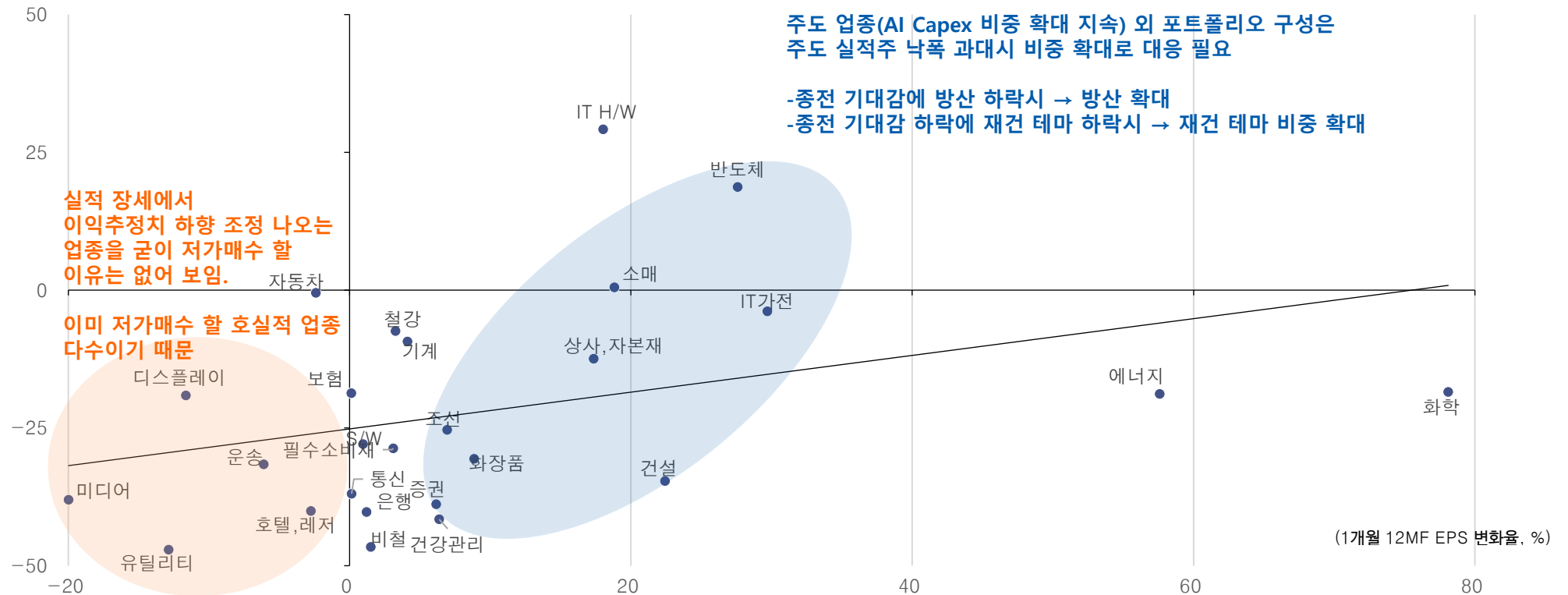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업종 전략: 반도체와 함께 낙폭 과대 실적주 비중 확대

- 반도체 이익 주도력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반도체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더욱 다음주 삼성전자 파업 해결, 레버리지 ETF 출시, 엔비디아 실적 등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주가 추이에 영향 갈 이벤트 다수이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 굳건하게 가져가야하는 상황. 반도체 + 호실적 업종 구성으로 알파 추구
- 금주 2차전지 등 낙폭 과대 실적주 저가매수 필요하다는 판단. 반도체 중심으로 가되 IT가전(2차전지), 상사/자본재(방산), 건설(재건), 화장품(낙폭과대), 소매(모멘텀, 인바운드 회복) 추천 업종으로 제시

## 반도체 업종 절대비중 유지하며 실적주 순환매를 대기 : 2차전지, 화장품, 방산, 조선

(1개월 상대수익률, %p)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이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 知